

인터넷의 그늘

허명구

Net 평론가

맨 처음 기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철로가 부자와 빈자 사이의 거리를 없애서 보편적인 인류의 형세애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전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유사한 말을 했다. 도시가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이것이 모든 이들을 교육시키고 고상하게 만들 혁명적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도 말이 없을 수 없다. 이 새로운 문명의 장치는 전세계 개인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자기 운명과 세계에 대한 더 넓은 범위의 통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원하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세계를 향하여 던질 수 있다. 정보증개의 길목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개개인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약화시켜 민주주의가 선장된다. 인터넷은 위대한 평등주의자다. 인터넷에서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한 볼륨으로 전파되고 모든 정보는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 오직 그 내용의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등등.

소비자의 지위 상승?

그러나 기차가 그렇지 않았고, 전화가 그렇지 않았고, 텔레비전이 그렇지 않았듯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은 길수록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역시장론(reverse market theory)을 보자. 이 것은 개인들, 소비자, 수요자의 힘이 거대기업, 공급자들의 힘보다 강해진다는 주장이다. 인터

넷시대가 오기 전에는 소비자, 개인들보다 기업 즉 공급자의 힘이 더 강했다. 소비자들은 상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업보다 더 적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결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격결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요사이 유행하는 역경매시장은 그 하나의 예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하면 물건을 팔려는 사람(공급자=기업)이 물건값을 가장 비싸게 부르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게 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새로 등장한 역경매방식은 소비자가 물건값을 가장 싸게 부르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경쟁시키는 방식이다. 역경매시장은 소비자 우위를 실현시킨 역시장의 상징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앞면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뒷면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간단히 이야기하여 기업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여 기업간의 가격인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경쟁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퇴출되어 결국은 기업의 집중은 가속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바로 그 기업의 직원이거나 그에 딸린 가족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구조에서는 개개인들의 삶도 그만큼 고달파진다. 기업의 집중이 가속되고 개인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것이 개인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사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

인터넷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증가하는 세력(매스미디어, 전화 등)을 약화시켜 개인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며, 개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인터넷을 통하여 마음껏 세상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신장된다는 주장은 어떤가. 사실 인터넷 사이트의 각종 게시판에는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올라오고 아무나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표현 가능성의 증대 등 사회정치적으로도 개인의 합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동전의 앞면만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지 않은 동전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뒷면은? 요사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메일 같은 특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각종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다. 회원등록을 하려면 자신의 신상에 대해 시시콜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다. 나의 신상정보가 각종 주요 대형사이트에 의해 파악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나 통제할 길이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정보가 대부분 무료라는 것에 환호를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무료가 아니다. 무료로 정보를 주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역시 아처럼 무료로 사용자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회원이 100만이 넘었네 하는 사이트는 그만큼 개개인들의 신상정보를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개인의 신상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의해 수집되고 그 이용에 대해 개인들이 통제력을 가질 수 없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를 신상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사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이 특정사이트를 몇번만 이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태이터가 자동으로 분류되어 정보로 저장되는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모 회사는 이런식으로 수집한 1억여명에 대한 정보를 돈을 받고 다른 업체에 넘겨 주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금권과 기술에 의한 정보의 독점과 통제는 국가에 의한 독점과 통제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선택권?

인터넷은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 필요한 것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대중지배는 약화되고, 개인들의 지위는 강화된다 는 주장은 어떤가. 실제로 요사이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비싼 돈을 들여 고객맞춤 서비스 이른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고객들에게 줘어져 있는 정보선택

권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로 더욱 가속화되는 정보선택은 정보편식이 되어 개개인을 '선택적' 장님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정한 선택의 결여, 즉 유쾌하지 않은 '컨텐츠'도 필터링하여 막아낼 수 없는 상태는 더 넓은 사회의 결속을 위해 필요한 조건일 수 있다. 개개인이 매일매일 뉴스를 선택해 볼 수 있을 때는 매일매일의 뉴스를 선택해 볼 수 없었던 때보다도 정보접촉의 범위가 더 좁아진다. 개인적 관심사가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즈화 되면, 관점의 다양함을 접할 수 없게 된다. 경험공유의 폭(범위)이 좁아지면 절수록 우리는 정보소비자로서 저마다 고립된 방구석에 처박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스타크래프트 동호인, XX 증권거래자 등으로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는, 의사를 통하게 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다른 세계와 문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그럴싸한 동네도 커스터마이즈된 정보만 받아 보며 각자가 따로 노는 황량한 세상으로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의 강점이라고 가정된 열린 마인드도 만들어지지 않으며, 중개자의 장벽을 허물어 만들어지는 수많은 개인들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다. 요사이 네이버이나 통신동호인들 사이에 형성되는 문화가 한편으로는 개인적 창의의 번득임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되고 과편화되는 현실이 이러한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인터넷은 무심한 인프라일 뿐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의 장미빛 전망의 뒷면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 보았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인터넷은 사회생활의 새로운, 피해갈 수 없는 인프라가 되고 있다. 사회가 썩었다고 하여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인터넷을 떠나 살 수 없다. 모든 동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도 있고, 뒷면이 있으면 앞면이 있는 무심한 삶의 인프라. 새로운 생존조건인 그 무심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지키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사회적 평화를 지켜나아갈 것인가 하는 해묵은 과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